

기러기 아빠, 일진회와 학교 폭력, 입시 전쟁, 교육비 비중 세계 1위 등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해가 갈수록 국민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현실이다. 필자가 30여년간 교육의 현장에서 접했던 사례를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그 원인과 해결점을 같이 생각해 보고 싶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시절, 시험을 보는 중에 한 아이가 자물쇠를 끼어놓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다른 아이들이 알지 못하도록 지적은 않고, 시험을 마쳤다. 아이들을 내 보낸 뒤 가방을 열어보니 어른 글씨로 요점 정리와 예상 문제가 빼곡히 적혀있는 자료가 들어있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다른 아이 엄마들이 만점과 1등을 자랑하고 다녀서 부럽고 초조한 마음에 친한 엄마 셋과 함께 과목별로 학습 자료를 만들어 나눠 갖고 외우기 공부를 시켰다고 한다. 아마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세 명의 아동끼리 비교도 하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요점 정리에 다 있는데 틀렸다고 혼을 냈을 것이 눈에 선했다. 아이들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커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이 어리석음이었다고 한다. 어리석음이란 바로 연기에 대한 어리석음이다. 연기법을 쉽게 해석하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으로, 그 아이가 행한



불자 세상보기

김한기 서울 은석초등학교 교장

연기법으로 '교육' 지키기

커닝은 부모의 심리적 압박이 원인이 된 것이다.

자녀 교육은 서두르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여년 전 중학교 교사 시절, 학교 방직으로 가솔하면 퇴학시킨다고 발표했던 적이 있다. 우리 반 아이가 가솔을 하여 삼일 만에 돌아왔다. 가솔이유를 물었다. 새끼 새를 키우던 아이는 새벽부터 농사일을 해야 하는 부모가 계속 울어대는 새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화를 내며 갖다버리라 하자 가솔했다고 말했다. 아이는 새가 불쌍하고 키우고 싶어 농협창고 속에 들어가 삼일 동안 새와 같이 있었다는 것이다.

가정은 엄격함이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돌아갈 수 있는 포근함이 있어야 한다. 부모 둘 중 한 사람만이라도 아이와 통하면 아이는 갈 곳이 있는 것이다. 학교 규칙도 만드는 아니다. 가슴을 열어 놓고 대화가 있어야 한다. 문제 학생의 출발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는 알아야 한다.

남의 아이만 지도하며 내 아이에게 문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중 3인 외동딸이 돈을 일찍 벌어서 가정에 보탬을 준다는 실업계고등학교 진학을 하겠다고 했다. 비평준화 지역인 분당

에서 일류 고등학교로 진학할 실력은 못되고 부모 기대에 맞추지 못할 듯하자 고민 끝에 탈출구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택한 것 같았다. 그때 네 실력에 맞는 고등학교를 택하고 원하는 것을 전공하라고 권했다. 딸에게 좋아하던 미술을 하게 하니 공부도 같이 열심히 했다. 그 후 무난히 미술대학에 진학한 딸이 벌써 3학년이다. 아이의 소질에 맞고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 부부가 그것을 결정할 때까지 그리 쉽지 않았다.

12연기 중 애(愛)부터 고통이 생긴다고 한다. 사랑하는 것을 가지려(有)하니 쉽게 갖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녀만큼 큰 사랑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대가 더 커지는 것이다. 부모의 체면과 아이에 대한 기대에 무리한 요구가 커질수록 자녀는 부모와 친구, 선생님과 멀어져 문제아들끼리 모이게 되며 집단 폭력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캐나다 법정에 선 기러기 아빠의 사건도 가정의 소중함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 이산가족을 만들었고, 아이들의 인격을 인격체로 존중해 주지 않은 결과물이다. 어쩌면 올바른 자녀교육은 연기법을 잘 알고 행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진리의 등불로 삼고 생활해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한일간 정신적 물질적 채권채무 관계를 계산해 본다면 한국은 분명 채권국이다. 일제 36년 이전 역사가 그랬고 그 이후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채권국인 한국이 모질지 못했던지, 아니면 채무국의 뻔뻔함 때문이었는지 그동안 채권 문제가 제대로 인식되거나 해결될 기미를 보인 적이 없다.

일본 시마네 현의회가 지난 16일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 독도가 일본 영토라 적극 주장하고 나온 것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의 뻔뻔함을 확인하게 된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전쟁범죄를 회색하고, 정신대 문제에 몇몇치 못한 반응을 보이며, 끊임없이 역사왜곡을 시도하는 일 자체가 채무에 대한 성실치 못한 반응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그런 나라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숙명을 지고 있어서인지 그동안 많은 것을 양보해 왔다.

하지만 독도문제는 영토에 관한 것으로 여타의 한일 관계 문제와는 전혀 다르다. 타국 영토를 자국 것이라 주장하는 것

우린 365일이 '독도의 날'

은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로의 도발이다. 독도가 예부터 한국 영토라는 것을 수많은 옛 문헌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왜 일본은 새삼 이 같은 도발을 하는 것일까.

지금 동북아 국가끼리 손잡고 EU와 같은 동북아 공영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일본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에도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스스로의 품위를 손상시켜 세계인의 손가락질 받을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

일본이 아직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해방 후 한국의 어느 정권도 일본과 독도문제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고 어딘가 허점을 남겨 두어왔다는데 있다. 미치지근거하는 참여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역시 국민 전체의 정서라기보다 민족주의를 은근히 부추기는 정치적 입면이 강하다. 그동안 독도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한국사회는 들끓는 일과성 냄비현상을 보인 후 곧 잊혀진 듯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끝났다면 독도문제는 되풀이 되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는 독도문제로 한국 사회가 끓어오르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은 이번에도 독한 결단을 내야 한다. ■김경자(캘리포니아)



이렇게 들었다 재난과 공생

삼계는 편안함이 없었다. 불타는 집과 같았다. 못 고동이 가득 차서 몹시 무섭다. 항상 생로병사의 두려움이 있다. 이 같은 두려움은 불과 같이 항상 타올라 그침이 없다. 여래(如來)는 이미 삼계의 불난 집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한거(閑居)하시며 입야에 안처하시다.

(법화경)

세계 곳곳에서 자연 재해와 같은 대재앙들이 불려온 고통에 몸부림치는 인간들의 신음소리가 높다. 그러나 그 신음소리만큼이나 그 고통을 함께 극복하고 나누려는 인간에게 고통을 나누는 시점이기도 하다.

3월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쓰나미(지진해일)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긴급사태에 공동대처하기로 합의했다. APEC 21개 회원국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05년도 1차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APEC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 대응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해 말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쓰나미가 일으킨 파장이 피해 당사국에 국한되지 않고 인근 국가와 나아가 전 세계로 번져갈 수밖에 없다는 '지구공동체'적 가치관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회원국의 합의점은 한치 앞을 모르는 불안한 현실 앞에서 지구촌 가족들이 나눔과 공생으로 만들어 낼 희망을 얘기한다. 자국의 이익 쟁기에 급급한 국제협력기구 오만만에 공생의 값진 교훈을 일깨울 씨앗 하나를 심는 셈이다. 이 씨앗이 무차별적으로 몰아닥친 대재앙 앞에서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인간애의 열매를 선사할 것이라 믿는다. 일찍이 '삼계는 편안함이 없다. 불타는 집과 같도다'라고 설파하며 '대승'의 길을 강조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열매와 다르지 않기에. ■천미희(부산주재 기자)

정희민(서울 노원구 상계동)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혜우·혜철 스님의 '갑동 포교'

517호 1면에 실린 혜우 스님과 혜철 스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불교계에 이런 스님들이 더욱 많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혜철 스님은 도라지 특화사업을 육천 군이 검토하도록 만들었다. 스님이 어찌서 이런 일을 했을까. 보살의 정신이 아니고서야 내 일도 아닌 일에 발벗고 나서 몇 년 동안이나 노력할 수 없다.

스님은 당신이 돈을 벌고자 할 마당 한 구석에 도라지를 3년씩이나 키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학적인 근거마련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과학대 등에 의뢰해 집견을 받을 정도의 철저했던 스님의 준비성과 노력도 존경스럽다.

차 재배 농민을 위해 제도교육원을 무료로 열어준 혜우 스님도 한줄기 갈라수 같은 삶을 사는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폐교를 인수해 차 재배 농민들이 한 단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털어 농민들을 위한 삶에 헌신 하려는 스님은 진정 보살로 보였다.

이런 두 분 스님들처럼 포교에 나서서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 말씀을 온 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혜우 스님과 혜철 스님 같은 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희민(서울 노원구 상계동)

출가연령 제한 풀어야

조계종은 그들만의 종단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부처님께서는 나이, 성별, 속세의 지위 등 모든 세속적인 조건들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였으며, 근거에 따라 방편을 펴 제도하셨다. 그런데 조계종은 고령 출가자교육이 쉽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출가를 제한하는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폐단을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그들만의 종단이 되어 간다는 생각과 우리나라 불교 종단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조계종의 아집과 독선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나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큰 원력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kim(웃다뉴스)

불교성지 보존 제대로 하자

3월 초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성지를 잘 가꾸자는 내용의 세계불교성지보존회가 창립됐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교 초전지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것 같았는데 이번 보존회의 창립으로 우리나라의 불교성지들도 잘 보존되고 복원되고 관리되었으면 한다.

보존회는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 등 불교 초전지에 기념 사찰을 건립하겠다고 했다.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 정갈 그 시대 현실에 어울리는 사찰이 건립되기를 바란다. 국적도 알 수 없는 사찰을 초전지에 지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법한 기념 사찰이 되어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윤익경(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독자 시

생로병사는 어디에...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는데 생로병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허공에 기러기 날으나 자취 없으니 생로병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래가 산을 오르고 토끼가 용궁 찾으면 생로병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서남북과 상하(上下) 없을 때 생로병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철근(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연대' 민명

심민섭



佛事 한번이면 영도논쟁 끝!

불교방송 창사 15주년 기념, 중국 실크로드 불교 성지순례

동서양을 잇는 문명의 교역로, 실크로드 성지순례!

불교방송에서는 창사 15주년을 맞아 오는 4월 16일과 23일, 5박 6일 일정으로 2회에 걸쳐 불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를 실시합니다.

서역 최대의 도시 우루무치를 시작으로 중국 3대 석굴인 막고굴, 삼장법사가 인왕경을 설법했던 고창고성과 세계문화유산인 교하고성 등을 견학하며, 만년설산과 초원의 눈부신 경치를 감상하고, 마지막 날에는 북경의 천안문과 자금성을 관광 합니다.

지도법사는 차 한잔의 선율을 진행하시는 진명스님 노적사 주지 종후스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 동참금 : 1,080,000원(5박 6일)
● 비자 : 중국 비자비용 24,000원 별도
● 포함내역 : 1억원 여행자보험, 공항이용료 및 출국세 등
● 신청마감 : 출발 10일전 까지
● 출발 : 2005년 4월 16일(토요일), 4월 23일(토요일)
● 문의전화 : 불교방송 705-5302, 5303



Table with columns: Date, Departure/Arrival, Transportation, Time, Main Event, and Contact. It details the itinerary for the Silk Road Buddhist Holy Land Pilgrimage, including dates like 4/16, 4/23, 4/17, 4/24, 4/18, 4/25, 4/19, 4/26, 4/20, 4/27, 4/21, 4/28 and activities like visiting the Mogao Caves, Gaochang Ancient City, and the Great Wall.